

[바둑]

16개월 센돌 천하!

이세돌 한국랭킹 1위 독주...2위 이창호 강동윤 3위...女기사 1위 루이 전체 54위



'센돌 천하'가 계속되고 있다. 이세돌 9단이 2월 랭킹에서도 1위를 지켰다. 6월 한국기원이 발표한 2월 프로기사 랭킹에서 이세돌은 9천811점을 얻어 1위에 올랐다. 2007년 11월에 이창호 9단을 누르고 1위에 오른 지 16개월째다. 지난달 강동윤 9단에 2승, 콩제 7단에 2승, 목진석 9단에 1승 등 5전 전승을 거둔 이세돌은 올초부터 일부 개편된 랭킹제도에 따라 53점이 상승해 1위 자리를 굳건히 지켰다. 이창호 9단은 9천633점을 얻으며 2위 자리를 지켰다. 하지만 지난달에 1승2패의 부진을 보이며 17점이 떨어져, 이세돌과 점수차가 108점에서 178점으로 더욱 벌어졌다. 이창호가 현재 격돌중인 바둑왕전 결승을 비롯해 3개 대회 결승전에서 모두 완봉으로 이겨야 역전할 수 있는 차이인 만큼 당분간 이세돌의 독주는 계속될 전망이다. 지난달 1승3패로 부진했던 강동윤 역시 3

개월 연속 3위를 지켰으나 랭킹 점수가 26점이나 떨어지는 등 불안한 모습을 보였다. 4위와 5위에는 각각 원성진 9단과 박영훈 9단이 올라 1위부터 5위까지는 1월 순위와 변함이 없었다. 지난달 14위에서 7위로 7계단이나 경추되며 '틀10'에 진입했던 윤준상 7단은 점수가 16점 상승하며 자신의 최고기록인 6위까지 순위를 끌어올렸다. 윤준상은 지난달 강동윤 9단과 박병규 6단을 연파하며 GS칼텍스배 본선에 진출했다. 원익배와 국수전에서 패점을 안은 목진석은 24점 하락한 9천450점으로 지난달보다 한 단계 하락한 7위로 주저앉았다. 지난해 11월까지 3위를 지키던 목진석은 12월에 4위, 1월에 6위를 기록한 데 이어 2007년 10월 이후 16개월만에 다시 7위로 떨어졌다. 16세의 어린 나이에 원익배 십단전에서 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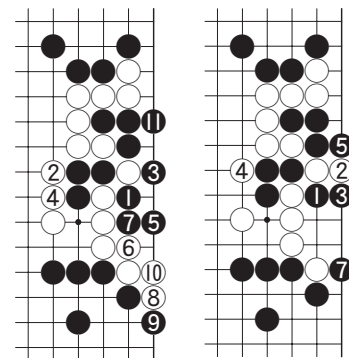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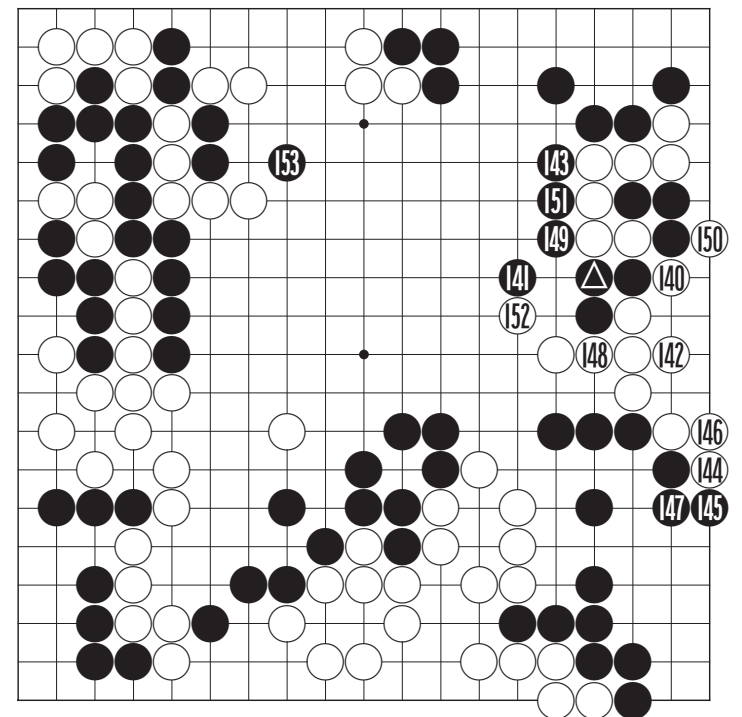
■2009년 2월 한국 랭킹 순위

| 순위 | 기사명 | 랭킹 점수 | 순위 변동 | 점수 변동 |
|-----|-----|-------|-------|-------|
| 1위 | 이세돌 | 98811 | - | 53 |
| 2위 | 이창호 | 96333 | - | -17 |
| 3위 | 강동윤 | 94569 | - | -26 |
| 4위 | 원성진 | 92505 | - | - |
| 5위 | 박영훈 | 92490 | - | - |
| 6위 | 윤준상 | 92460 | ↑1 | 16 |
| 7위 | 목진석 | 92450 | ↓1 | -24 |
| 8위 | 최철한 | 92430 | - | - |
| 9위 | 이영구 | 92399 | - | - |
| 10위 | 조환승 | 92388 | - | - |

승한 박정환 4단은 지난달보다 무려 12계단 상승한 13위에 올랐다. 랭킹점수도 59점이 오른 9천341점을 획득해 10위권 진입을 눈앞에 두게 됐다. 박정환에게 패해 원익배 십단전 준우승에 머물렀던 백홍석 6단은 19점이 하락한 9천318점으로 지난달 13위에서 15위로 두 계단 떨어졌다. 백홍석은 우승, 준우승의 가산점이 있던 예전 제도였으면 랭킹이 상승해야 하지만 승패에 따라 점수가 오르내리는 새로운 제도의 피해를 본 셈이다. 여자기사 중에는 루이나이웨이 9단(54위)이 지난달에 이어 1위 자리를 지켰다. 박지는 9단(67위)이 2위, 조혜연 8단(77위)이 3위에 올랐다. /연남뉴스

제5회 서구청장배 바둑대회

'살아가는 수가 있었다'
학생부 결승전 8보 (140~153)
白 국승찬 5단 <문성고 2>
黑 김근홍 5단 <전자공고 2>



는 수로 패착이 되었다. 국승찬 군이 백 142로 효과적으로 지키자 잔뜩 보태준 결과가 패버린 것이다. 흑 141로는 무조건 '참고도1'의 흑 1로 끊고 볼 자리. 이렇게 두지 않으면 승부가 안된다. 그러면 백은 2로 막아야 하는데 흑 3으로 따내고 5, 7로 두는 수가 있어 11까지 아슬아슬하게 사는 수가 있었다. 백 8로 11에 두면 흑이 10에 두어 넘어가 버린다. 또 백이 '참고도2'의 2에 내려서는 것은 흑 3, 5로 따낸 다음 백 6으로 먹어칠 때 흑 7로 두어 넘어가는 수가 있다. 어떻게 두어도 살 수 있었던 것을 그만 물러서고 만 것이다. 간발의 차이로 백이 위기를 벗어난 장면이다.

흑 ▲로 이어 승부처를 맞이한 장면이다. 국승찬 군이 미리 바둑 듯이 노타임으로 백 140에 끊어갔는데 김근홍 군은 장교를 거듭하더니 훌쩍 141로 물러서 버린다. 이 수가 전투를 기대하던 관전자들을 뻔뻔하게 한 나머지 짜이 없

“바둑백서, 인터넷으로 보세요”

한국기원 홈페이지 제공

“바둑백서 이젠 집에서 편하게 인터넷으로 보세요”
국민체육진흥공단의 지원을 받아 한국기원이 지난달 국내 최초로 발간한 '2009 대한민국 바둑백서'를 인터넷에서도 볼 수 있게 됐다.
한국기원 홈페이지 (http://

www.baduk.or.kr/)에 접속하면 누구나 무료로 볼 수 있다. 백서는 1부 '한국바둑의 어제와 오늘', 2부 '바둑의 정체성과 산업', 3부 '세계 속의 바둑'으로 구성됐다. 바둑의 인기가 점차 하향곡선을 그리고 있는 시점에서 발간된 바둑백서는 새로운 도약을 위한 자료로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오광록기자 kroh@

루이, 제2 전성기

프로여류국수전 김윤영 꺾고 이화진과 우승 다름



루이나이웨이 9단이 지난 2일 한국기원 본선대국실에서 열린 제14기 가그린배 프로여류국수전 준결승에서 김윤영 3단을 137수 끝에 불계로 잠재우며 결승에 진출했다. 루이나이웨이의 견제함을 유

감없이 보여준 경기였다. 돌을 가려 흑을 잡은 루이나이웨이는 시종일관 김윤영을 압도했다. 김윤영의 실리작전에 아랑곳하지 않고 중앙을 두텁게 꾸러나간 루이나이웨이는 전전후 압박으로 경기를 몰고 갔다. 박지은을 꺾고 준결승에 올라 신선한 돌풍을 예고했던 김윤영은 루이나이웨이의 파괴력에 이렇다 할 반격도 펼쳐보지 못했다. 승리한 루이나이웨이는 오는 20일 같은 장소에서 이화진 3단과 대회 우승을 다툰다. 두 기사의 상대전적은 루이나이웨이가 4승1패로 앞선다. 대회 제한시간은 3시간에 60초 초읽기 5회가 주어진다. 결승전은 3번기로 진행되며 상금은 우승 1천1백만원, 준우승 500만원이다. /오광록기자 kroh@kwangju.co.kr

“바둑 배운 아이, 지능·집중력 높다”

경희대 김바로미씨 5세아동 68명 조사



바둑을 배운 아이들의 지능이 일반 아이들보다 높고 집중력이 높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경희대학교 아동학과 김바로미씨는 자신의 박사 논문에서 바둑 프로그램에 참여한 어린이가 참여하지 않은 어린이보다 지능(IQ), 집중력(과제집중지속능력), 문제해결력, 만족지연능력(충동을 억제하고 참는 능력) 등에서 우월하다고 주장했다.

김씨는 초등학교 병설유치원 2곳의 만 5세 아동 68명을 대상으로 7개월에 걸쳐 실험을 했다. 1단계로 이들 68명에게 유아용 지능검사(K-WPPSI), 과제 집중 지속능력 검사, 문제 해결력 검사(CPS), 만족지연능력 검사 등 4개 부분의 검사를 했다. 그 다음 68명을 무작위로 두 팀으로 나누어 36명을 바둑 프로그램에 참여시켰다. 프로그램이 종료된 뒤 68명의 어린이에게 다시 위의 네 가지 검사를 실시한 결과 바둑 프로그램에 참여한 아이들이 모든 부분에서 우월한 결과를 나타냈다. IQ(동작성 IQ)는 일반 아이들이 99.8에서 109.4로 9.8

영동대 마인드스포츠학과 정시 추가모집

마인드스포츠 지도자를 양성하게 될 강릉 영동대학교의 마인드스포츠학과가 정시추가모집을 한다. /오광록기자 kroh@kwangju.co.kr

바둑을 배운 아이들의 지능이 일반 아이들보다 높고 집중력이 높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사진은 한 바둑대회에 참가한 아이들이 바둑을 두는 모습. (사이버오로 제공)

영동대학교는 2009학년도부터 세계 최초로 40명 정원의 2년제 '마인드스포츠학과'를 개설했다. 마인드스포츠학과는 바둑과 체스, 브리지, 체커 등을 각 부문별로 나눠 이론과 실기를 병행한다. /오광록기자 kroh@kwangju.co.kr

합격은 김영에서

전대편입특설반/ 일반편입/ 학사편입
사범대편입/ 의·약대편입/ 의·치약전문대학원
★ 2010년 김영스쿨 신입생모집

편입관련 문자상담 010-7766-1254

www.kimyoung.co.kr

그동안 12만 5천여명 편입합격!

김영편입학원

광주 동부경찰서 바로 뒤 (062)227-8088

2010학년도 편입대비

- 2010학년도 편입대비
- 기초부터 알기쉽게
- 편입영어 입문 및 기본과정
- 문법, 독해, 어휘 MT(조별토론학습)

대학편입 대개강 : 3월 2일

= 앞서가는 수험생들의 선택! “역시” 無等이었다. =

7.9 급 공무원 對備 전문

| | | | |
|---|-------------------------------------|--|--|
| 문제풀이반 4주완성 수시접수 | 국가+지방직 | 소직렬이론반 (영어)10기가능직 | 모형반/사범/교사/박람회교수 |
| =속 지방직 채용인원= | | 개강 | 소방직 |
| • 서울903, 부산238, 대구100, 인천383, 광주119 | • 대전105, 울산 86, 경기885, 강원160, 충북162 | • 서울 300, 부산 82, 대구 94, 인천 277, 광주 92 | • 대전 78, 울산 42, 경기 273, 강원 178, 충북 113 |
| • 충남198, 전북 206, 전남 308, 경북 214, 경남 816 | | • 서울 188, 전북 120, 전남 280, 경북 128, 경남 110 | |

www.mdgosl.co.kr 222-4560

공인중개사 전문학원

최강의 교수진 "저자직강" 전원 서울에서 출강!

주택관리사 "2009년 9월 20일 시험" 대개강 2월 2일
광주고시학원
직장인용 위한 고용보험 환급과정 (본원) ☎ 227-8003 전일여고 맞은편 3층
국비지원 (정액제) (합판점) ☎ 971-0002 광주은행 칠담점 4층